



## 신임 학부장 인사말



김봉근 교수

경제학부 재학생, 동문 여러분, 신임 경제학부장 김봉근입니다. 먼저 우리 학부의 최근 변화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우석경제관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성기학회장님의 100억이 넘는 출연, 재직교수 및 동문 여러분의 발전기금, 그리고 서울대의 건축기금이 들어간 우석경제관은 지난 몇 개월간 수년치의 학부 학술행사 전체와 버금

갈 정도의 많은 학제 간 학술행사와 세계적인 해외학자들의 방문연구를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석경제관에서 머무른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예일대 코스타스 교수가 멋진 시설에 특별한 고마움을 전할 정도로 우석경제관은 최고의 시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가을부터 진행된 경제학부의 미래를 결정할 한국경제혁신센터의 건립 추진 및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모금은 류근관 당시 학부장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발전위원회의 권오규, 황영기 공동위원장님, 박재운 명예교수님의 헌신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마침내 센터 신축이현 사회대 도서관 위치에 내년 상반기부터 2년의 건축기간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축건물은 경제학부 교수연구실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및 최첨단 도서관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교수들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00억 경제학부 발전기금 목표는 작년 말 100억원의 두나무 송치형 의장님의 출연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단기간에 달성되었습니다. 송치형기금은 특별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 신임교수의 장기연구비 및 재학생 장학금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신 이상승 전임학부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46년 상과대학의 일원으로 시작한 경제학부는 현재 940여명의 학부생, 130여명의 대학원생, 10명의 교직원, 그리고 38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문들은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학계, 정부 및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법대 학부 과정을 대체한 자유전공학부 내에서 경제학 전공의 압도적인 비중, 다른 분야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복수전공과 부전공 수요로 서울대 내에서 최고의 학부로서 경제학부의 위상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 입학생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경제학부는 가장 탁월한 연구 성과를 가진 신임교수들을 지속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경제학 분야 최상위 5대 저널에 이미 두 편의 논문을 출간한 윤참나 교수님이 부임하여 첨단 미시계량방법론과 도시 및 지역경제학 등의 새로운 분야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연구업적의 신임교수 충원과 더불어 경제학부는 다른 어떤 학과에 비해 가장 까다로운 승진과 정년보장규정으로 현직교수들의 연구수월성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의 우월성은 학내에서는 서울대 전체 10명 뿐인 석좌교수에 두 명의 학부교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외로는 7년간의 BK21플러스 사업을 수행한 2020년까지 연구, 교육 및 국제 평판도에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하였고, 이어진 4단계 BK21사업(~2027년)에서도 “한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 사업단(장용성 단장)의 선발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는 저성장주세,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경제위기의 대응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집단으로서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수진의 탁월한 연구 성과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사회문제들의 원인과 정책대안에 대한 적절한 분석에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경제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인력 양성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원 입학정원을 대폭적으로 줄인 석박사통합체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교수진의 질적 연구 역량의 지속적인 향상, 석박사 통합체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우석경제관을 활용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

2면에서 계속됩니다.

화, 그리고 한국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해결이라는 4가지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학부 대학원은 해외 연구 중심대학과 국제기구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박사졸업생들이 한국은행과 제주대 등에 바로 임용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해외 유수의 연구중심대학에 박사졸업생을 임용시킨다는 목표의 달성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연구 인력의 배출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 높은 국내 경제학박사 시장의 자립의 토대를 쌓아 국내 대학원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연구 인력의 양성에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석경제관, 한국경제혁신센터 및 귀중한 발전기금에 토대를 둔 경제학부의 지난 몇 년간의 변화와 활력은 제가 학부교수로 부

임한 2009년경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전임학부장님들, 발전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기부자님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 역동성을 저의 임기 2년 동안 동료 교수님과 교직원 선생님, 경제학부 재학생,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부장 김봉근 드림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 불어불문학사, 경제학사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시간대 경제학박사  
 성균관대 부교수  
 서울대 교수

**주요 소식 \_교수 수상 및 동정**

**전영섭 교수 논문(장희인, 허윤지 공저), 한국경제학술상 수상**



한국경제학회는 전영섭 서울대 교수, 장희인 한국전력공사 선임연구원,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2021년 한국경제학술상(범 미시분야)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경제학술상은 한국경제학회에서 매년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전영섭 교수와 허윤지 박사 그리고 장희인 박사과정생은 해당 논문 "A Fair and Stable Benefit-Sharing for the Northeast Asia Supergrid under Flexible Networks" 을 통해 2030년 동북아 슈퍼그리드(거대 규모 전력망) 계획에서 추정되는 편익을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지난 2월 10일에 열린 한국경제학회 2021년 정기총회 중 진행되었다.

**박예나 교수, 제 52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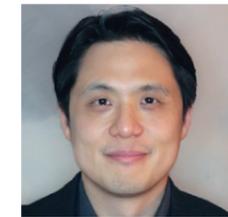
지난 3월 30일 박예나 교수가 '제52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52회이다. 이 상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으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학자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예나 교수는 '민간 저축·보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 소득세 연구(Optimal Taxation with Private Insurance)' 논문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논문은 민간 저축 및 보험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정부의 최적 조세 공식을 도출했다.

박예나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하여 논문에 대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였다. 소득불평등 문제가 각국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나라마다 정치·경제 제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경제 주체들과 시장의 반응도 다양각색이어서 최적의 조세·재분배 정책을 찾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예나 교수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화는 이에 따르는 경제 주체의 반응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3월 3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렸다. 이번 매경 이코노미스트 상에는 역대 가장 많은 총 40편의 경제, 경영 논문이 접수되었다.

**황일우 교수, 2022 Best TE Paper Prize 수상**



황일우 교수가 Econometric Society에서 수여하는 "2022 Best TE Paper Prize"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지난 2년 동안 [Theoretical Economics] 에 출판된 논문 중 심사위원회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한 논문에게 수여한다. 황일우 교수는 Doruk Cetemen, Ayca Kaya와 공저한 "Uncertainty-driven Cooperation" (불확실성이 이끄는 협력) 이라는 논문으로 위 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협업프로젝트에서 불확실성의 존재가 무임승차자를 완화시켜 팀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시상식은 8월 22-26일에 이탈리아 밀란에서 개최되는 European Meeting of Econometric Society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영섭 교수,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conomic Theory의 Fellow 로 선정**



전영섭 교수가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conomic Theory(SAET)의 Economic Theory Fellow로 선정되었다.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conomic Theory(SAET)는 학문적 우수성과 독창성 그리고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매년 Fellow를 선정한다. SAET의 Fellow가 되었다는 것은 논문 실적 및 교육 업적(우수한 학생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임교수 부임**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부임**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2022학년도 여름부터 특임교수로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구윤철 특임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82학번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7년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이정민 교수, 아시아-호주 노동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



이정민 교수가 아시아 - 호주노동경제학회(AASLE, Asian-Australasian Society of Labor Economics)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시아-호주노동경제학회는 아시아 지역의 노동경제학자들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북미의 Society of Labor Economists (SOLE), 유럽의 European Association of Labor Economics (EALE)와 함께 세계 3대 노동경제학회이며, 지난 2020년에는 이 학회들과 함께 세계 노동경제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f Labor Economics)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김봉근 교수 경제학부 학부장 겸보**



지난 2년간 경제학부 학부장을 역임했던 이상승 교수에 이어, 2022년 7월 18일부터 향후 2년간 김봉근 교수가 경제학부 학부장을 겸보한다.

김봉근 교수는 서울대에서 불문학/경제학을 취득하였고 2002년에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학과 개발경제학이다.

**신임교수 부임**

**이서정 교수, 경제학부 부임**



이서정 교수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이서정 교수는 계량경제학 전공으로 2012년에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소식 및 교수신간

서명환 교수,

학술지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학회에 논문 채택



서명환 교수의 논문 “Fast and Robust Online Inference with Stochastic Gradient Descent via Random Scaling”, coauthored with Sokbae Lee, Yuan Liao, and Youngki Shin, 이 AAI-2022, the Thirty-six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학회에 채택되었다.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AAI)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학회는 2022년 2월 22일부터 3월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022년도 학회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총 9,25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인 1,349편의 논문이 채택되었다.

교수신간



뉴케인지언 거시경제모형과 자연을경제  
윤택 지음

박영사 / 2021년 9월 출간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동안 실시된 통화정책의 정책수단과 이들의 실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단순모형을 우선 소개한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소개한다.

기후변화와 사회변동  
신범식, 김대현, 박정재, 주병기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2년 3월 출간

이 책에서는 기후변화를 정의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의 사회적 의미,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역사적 사례와 고기후학적 연구,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 에너지 전환이 야기하는 사회적 과제와 그 영향, 그리고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감축(mitigation) 부담의 공정한 분배와 글로벌 자본주의 대전환의 과제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저산팔을 상무좌사 편  
조영준, 고민정, 오창현 역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1년 9월 출간

조선후기 충청도 지역의 행상 조직 중 하나인 '저산팔을 상무좌사'의 현존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원문을 탈초, 정서, 번역, 해설한 전문 서적이다. 알아보기 힘든 초서로 작성된 내용을 읽기 쉬운 활자본으로 재구성하여 다듬었으며, 현대 한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을 번역하고, 각각의 문헌 및 특수 용어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예산·덕산·면천·당진 편'과 '저산팔을 상무우사 편'에 이어 세 번째로 출간된 연작이다. 경제학, 역사학, 인류학 등 전공을 달리하는 연구자의 협업을 통해 학제간 연구로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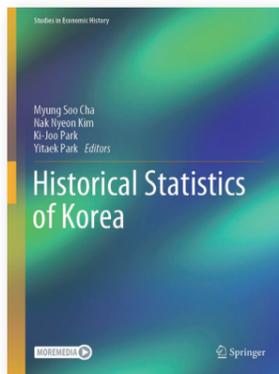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경제·문화 이야기  
조영준 외 지음  
현복스 / 2022년 1월 출간

1996년에 출간되어 스테디 셀러의 반열에 오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의 전면 개정판이다. 조영준 교수는 이번에 신규 집필자로 초빙되어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장돌뱅이, 조직을 결성하다」라는 제목의 새로운 글을 저술하였다. 구전을 역사로부터 분리하고, 문헌에 입각한 실증 연구에 의거하여, 조선후기 행상의 조직 운영과 멤버십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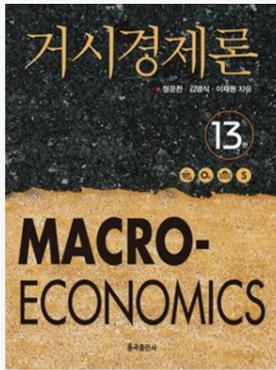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Vol.1-2  
홍석철, 조영준, 이영훈 외 지음  
Springer / 2022년 7월 출간

한국의 역사통계를 한국인 연구자 집단이 집대성한 최초의 영문 저술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회 통계를 망라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종래 널리 활용되어 온 일본인 연구자 집단의 연구 성과를 대체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학부의 교수진이 집필에 참여한 챕터는 「Health」(홍석철 교수), 「Distribution」(조영준 교수), 「Prices」(이영훈 교수·조영준 교수) 등이다.



# 퇴임교수 기고문 이인호



### 거시경제론 13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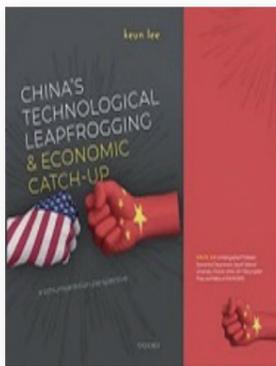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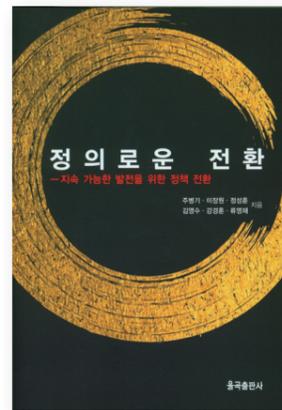
정운찬, 김영식, 이재원 지음  
울곡출판사 / 2022년 3월 출간

198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이를 설명하는 거시경제학의 동향을 소개하고 독자들과의 거시 경제적 사고에 일조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은 미시적 기초(microeconomic foundation)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일관되게 거시경제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는 점이다.

### 정의로운 전환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주병기 지음

울곡출판사 / 2022년 1월 출간

글로벌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에 대응하고 선진국형 지속 가능 발전경로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제언을 주고 있다.



### China's Technological Leapfrogging and Economic Catch-up 이근 지음

Oxford Univ, Press /  
2021년 12월 28일 출간

본 저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쉐퍼터 학파 관점에서 서술하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이후, 중국경제의 도전과 리스크를 중진국합정, 투키디데스함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공공경제학 5판

나성린, 전영섭, 홍성훈, 허은정 지음  
박영사 / 2022년 3월 출간

공공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학교재. 제5판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제도 현황을 다루고 있는 제9장 예산제도, 제15장 조세제도, 제17장 사회보장제도, 제19장 지방재정제도 등을 개정하였고, 다른 장에서도 학문 발전과 제도 변화를 반영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인호 교수

Felice Benuzzi 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프리카 아비시니아 에서 이태리 식민국 외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무려한 포로수용소 생활 중 우연히 보게 된 케냐산의 경치에 매료되어 케냐산을 등정할 계획을 세운다.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알프스 등산 등을 전문적으로 하여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케냐산은 그리 만만한 산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가 포로수용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나 전문적 등반대 구성을 할 인원이 없어 그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의 가장 황당한 부분은 케냐산 등정을 위해서 포로수용소를 탈출해야 하는데 포로수용소가 동쪽으로 아프리카 사막을 면하고 있어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 포로 수용소를 영원히 탈출할 수가 없다. 아프리카 사막을 맨몸으로 걸어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등정 후에는 포로수용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실제 등정에 성공한 후 수용소로 돌아왔다.

이것이 내가 수년 전에 읽었던 “미친 포로 원정대”의 내용이다. 이 책의 원제는 “No Picnic on Mount Kenya” 로 Benuzzi 가 자신의 경험을 적은 책이고 1994년에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The Ascent” 라는 영화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 이 책은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겨 이후에도 여러 번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은 포로수용소라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전문 등산을 위한 도구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등정 계획을 만드는가, 혹은 등반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려움과 작은 실패들을 극복 하는가 등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이 책이 나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탈주가 궁극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다시 포로수용소로 돌아오더라도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등정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 한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끔 물었던 질문은 만일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성취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이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작은 성취들이라도 열심히 이루어 가야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하여 궁극적인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런 일에 애를 써서 무슨 쓸모가 있냐고 포기하는 자신을 합리화한 적이 많다.

이제 학위를 마치고 경제학자로서 살아온 지가 어느 세 30년이 된다. 처음에는 경제학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조차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연구 결과를 우수 학술지에 게재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내가 생산한 연구들이 과연 세상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내 논문에 대한 인용 횟수를 찾아보니 상당히 실망스런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알아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학계에서 교류하는 학자들도 몇몇 있어서 그 정도면 학술적 업적이 있다고 자부하였었지만 실상은 보잘 것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명색이 경제학자로서 인간 생활의 경제적인 면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를 물어보면 내 연구는 물론이고 경제학 자체가 너무도 실망스런 성과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Benuzzi의 책은 내가 학계에서 활동하는 의미를 찾기 어려워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결국 포로수용소를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지 못하더라도 멀리 보이는 멋진 케냐산은 오르겠다는 꿈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를 이룬다. 내가 학자로서 일하면서 만들어 낸 성과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기여를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위에서 관찰하는 경제 현상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못되더라도 케냐산은 오르겠다는 꿈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인생에서 완전한 승자의 삶만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1980)미국 예일대학교 경영과학 석사 (1989)  
미국 UCLA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2)  
영국 Southampton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1993-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2001-2022)

# 신임교수 인사말1

## 이재원



이재원 교수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재원입니다. 부임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COVID-19 팬데믹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서 정식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곧 끝나고 캠퍼스에 다시 활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03년 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에서 경제학·수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5년 뒤인 2008년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크리스토퍼 심스(Christopher A. Sims) 교수님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노부히로 키요타키(Nobuhiro Kiyotaki) 교수님과 리카르도 라이스(Ricardo Reis) 교수님도 같이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위 후 럿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 at New Brunswick)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2013년 서울대에 부임했습니다. 2017년에 서울대를 떠나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다가 2021년에 다시 돌아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거시경제학 중에서도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연구분야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문별 가격 동학의 거시경제적 함의, 2) 정부 예산제약의 거시경제적 함의, 3) 금융시장 마찰의 거시경제적 함의입니다.

첫 번째 연구분야는 개별 기업의 가격 또는 부문별 가격 동학의 거시경제적, 정책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고도로 세분된 가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단의 거시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시 시계열 자료에서 관측되는 빈번한 개별 가격 변동과 거시 시계열 자료에서 관측되는 경직적인 일반 물가수준을 어떻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까? 개별 재화의 가격이 거시경제충격보다 부문별 충격에 더 빨리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격 경직성의 정도가 산업별, 부문별로 다른데, 이러한 비동질성의 정책시사점은 무엇인가? 저는 멀티섹터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multisector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연구분야는 정부의 예산제약을 만족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이 거시경제의 일반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이 통화정책, 즉 통화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물가수준 및 인플레이션율을 포함한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정부의 부채 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입니다. 최근 금융위기,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COVID-19 팬데믹 등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장

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재정팽창이 각국 정부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온 상황이다 보니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세 번째 연구분야는 금융시장의 마찰로 인해 경제주체 간 혹은 국가 간 차입 및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정책당국이 어떻게 경제안정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금융시장의 마찰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그 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의 분배적 함의, 법인세 감소의 성장 및 분배 효과, 유럽연합에서 국가 간 비동질성을 고려한 최적통화정책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적응하는 동안 저를 따듯이 맞추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교수님들 덕분에 순조로이 첫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대학 및 학부의 규정이나 사정에 밝지 못한 저를 많이 도와주신 직원분들과 조교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학력 및 주요 경력

위스콘신 매디슨대학교 수학, 경제학 학사(2003)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석사(2006)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박사(2008)  
 럿거스 대학교 조교수(2008-2013)  
 버지니아 대학교 조교수(2017-202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2013-2017), 부교수(2021-현재)

# 신임교수 인사말2

## 이서정



이서정 교수

이서정입니다. 저는 2000년 학부에 입학하여 군 제대 후 2008년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2012년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대로 옮기기 전까지 호주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에서 십여 년 동안 연구와 강의를 하였습니다.

시드니가 위치한 주(州)의 이름이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이며 줄여서 NSW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의 대학들은 2010년대 초반 이후 강력한 호주달러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경제학 박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

하였습니다. 교수채용 세미나 발표를 하기 위해 혹독한 겨울의 위스콘신을 떠나 도착한 시드니의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에 반해 꼭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운 좋게도 조교수직 제안을 받아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좋은 연구 환경과 넉넉한 연구비, 신임교수에게 주어지는 강의시수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즐겁게 연구하였으며 가족친화적인 문화에서 두 아이도 자연을 사랑하는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로서 그동안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간혹 있었던 성공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과,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시는 서울대의 여러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여 풀고 싶은 문제의 답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나아가 학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픈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계량경제학(Econometrics)입니다. 통계학과 수학을 사용해서 경제학의 여러 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경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양적, 질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량경제학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더 많은 계량경제학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경제학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데이터를 통해 경제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통계적 의사결정(statistical decision making)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주어진 경제 모형이 '참', 즉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며 오류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모형의 추정치를 통계적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경제 모형이 참이라는 가정이 합리적일까요?

경제 모형은 분석을 위해 현실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통계학과를 설립한 통계학자 George Box는 “모든 모형은 틀렸다. 그렇지만 어떤 모형은 유용하다(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매우 단순한 모형이나 매우 복잡한 모형 모두 적당히 단순화된 모형에 비해 현실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에 사용되는 경제 모형이 참이라는 기존 계량경제학 방법론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주어진 경제 모형이 참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통계적 의사결정입니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이 아닌 경제 모형을 통해서도 유용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참이 아닌 모형에서 얻은 추정치를 사용해 올바른 통계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한 구절을 빌려 바꿔 쓰자면, 참인 모형은 비슷한 이유로 참이지만, 틀린 모형은 저마다의 이유가

###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외교학 학사 (2006)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8)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201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2012-202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경제학과 선임 방문연구원 (2022-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22-현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 모형 중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GMM추정법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인데, 여러 분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시카고대학교의 Lars Peter Hansen 교수가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2012년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모형을 GMM으로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다루었고, 이후 관련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2021년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위스콘신대학교의 Bruce Hansen 교수와 공동으로 학술지 Econometrica에 출간한 논문에서는 모형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GMM추정법을 통해 유용한 추정치를 얻고 올바른 통계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논문의 이론적 결과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aron Acemoglu 교수를 비롯한 MIT, 하버드, 컬럼비아대학의 연구자들이 2008년 전미경제학회지(American Economic Review)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인당소득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GMM 추정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므로 보다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의 자료를 분석해서 소득과 민주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은 국가별로 민주주의 제도의 토양과 출발점은 서로 다르지만 일인당소득의 증가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그리고 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이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며 복잡한 모형, 즉 일인당소득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 시기별로 각기 다르다는 모형을 사용해서는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저자들은 현실을 단순화시킨 틀렸지만 유용한 모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와 Hansen 교수는 모형 오류 가능성을 감안한 GMM추정법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다시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형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일인당소득과 민주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더욱 강한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모형 오류 가능성 하에서의 GMM추정법은 최근 머신러닝의 발달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이질적 정책 효과(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준다고 가정했는데, 이러한 가정이 비현실적이므로 정책의 효과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고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질적 정책 효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스탠포드대학교의 Guido Imbens 교수와 MIT의 Joshua Angrist 교수가 관련 분야 연구로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질적 정책 효과 하에서도 분석의 유용성과 추정의 효율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모형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모형 오류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모형 오류 가능성 하에서의 GMM추정법을 이질적 정책 효과 하에서의 경제 모형에 적용해 올바른 통계적 의사결정 방법을 찾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학을 떠난 지 십 수 년,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 대학원생 시절 밤늦도록 앉아있던 연구실 건너편 교수연구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분한 자리에 앉아있는 부담감과 함께 더욱 열심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우리 학부를 발전시키려는 동문 여러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RATIONALES (래셔널즈)

글 : 정무형 (래셔널즈 회장, 간호대학 17학번)

## 1. 동아리 소개



경제학부 야구 동아리 Rationales는 2012년 창단하여 2022년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창단 첫 해부터 스누리그 B조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시즌에는 스누리그 Veritas조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Rationales는 현재 경제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는 학내 모든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단체활동 금지로 인해 한동안 활동을 못 하였지만, 규제가 풀린 현재 스누리그 참여와 함께 훈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 있어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팀, 경제학부 Rationales입니다.

## 2. 지도교수님 소개

Rationales의 지도교수님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님과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님입니다. 두 교수님께서서는 Rationales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해주시는 동시에, 다른 동아리 멤버와 함께 야구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진정한 야구인이십니다. 야구는 경험의 누적이 중요한 스포츠인데, 두 교수님의 야구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는 저희 동아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는 부원들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갖고 진로나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지도교수님 두 분의 열정이 있기에 저희 팀이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3. 동아리 활동 소개

### (1) 스누리그 참여

스누리그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야구팀 간의 교내 리그로 매년 3월부터 가을까지 시즌제로 치러집니다. 스누리그에는 본래 3개의 리그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021년은 제대로 시즌이 치러지지 않았고, 2022년이 되어서야 2개의 리그로 임시 운영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Rationales는 A, B조 중 A리그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 청백전

Rationales에서는 매년 청백전을 진행했지만 코로나 시즌엔 잠시 중단되었고, 올해 오랜만에 청백전을 진행했습니다. 청백전엔 Rationales의 팀원이 거의 다 참가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야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야구 경기는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시외 지역의 야구장을 하루 빌려 진행하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 이후에는 적절한 음주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데, Rationales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 (3) 훈련

Rationales는 시간이 맞는 팀원들과 함께 야구장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라이브배팅, 티배팅 등의 타격 훈련과 함께 피고를 진행하여 실책 없고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선수마다 고정된 포지션은 없습니다. 선수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이 있다면 한 포지션에서 연습하여도 좋고, 여러 포지션을 경험해보고 싶으면 여러 곳에 가서 훈련을 하면 됩니다. 선발 투수의 꿈이 있는 분이라면 훈련 때 라이브피칭과 함께 마운드에서 직접 공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 (4) 공대 학장배, 스누나라예 참여

Rationales는 매해 열리는 공대 학장배 대회, 신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스누나라예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꾸준히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공대 학장배와 스누나라예 모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공대 학장배에서는 팀 우승뿐만 아니라 투수, 타자 MVP도 저희 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Rationales는 앞으로 개최될 예정일 여러 다른 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4. 선수 모집

Rationales에서는 수시로 선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Rationales에서는 '즐거이는 야구'를 모토로 하기 때문에 수직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야구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인스타그램 snu\_rationales로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및 학번은 무관합니다.

# 학부 행사 및 활동

## 경제학부-경영학과 체육대회(설경전)

지난 5월 21일, 코로나 19로 개최되지 못했던 경제학부-경영학과 체육대회가 3년만에 개최되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와 경영대학 학생회 '보름'이 협력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e-스포츠, 줄다리기, 미션 제주, 축구, 혼성 피구, 스피드 제주 등 다양한 종목이 개최되었다. 운동 종목 이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으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경영대학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학부 내에서의 교류도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우석경제관 Open Talk 행사

### 1. '뉴닉' 김소연 대표 강연

지난해 11월 8일 우석경제관 개관 기념 오픈톡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다. 연사는 '뉴닉'의 김소연 대표(경제 14)로 총 3부로 진행되었다.

'융합과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오픈톡 행사에서는 '뉴닉'이라는 기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뉴닉'이 우리 사회에 전달하고자하는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이 되었다. 학부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닌 경제학부 학생들의 선배로서 학부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2. '베스트인베스트먼트' 강준열 대표 강연

지난 3월 15일 우석 경제관 개관 기념 두 번째 오픈톡 행사가 개최되었다. '베스트인베스트먼트'의 강준열 대표(경제 93)가 연사로 참여하였으며 기업가의 '융합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오픈톡 행사에서는 TED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연과 학부생과 연사의 질의응답을 통해 '베스트인베스트먼트'기업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강준열 대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 3. 한국은행 방흥기 박사 강연

지난 5월 31일에 세 번째 우석 경제관 오픈톡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은행 방흥기 박사(경제 94)가 연사로 참여한 이번 오픈톡 행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오픈톡 행사에서는 한국은행 커리어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주요 이슈, 한국은행의 미래를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 BK21 – Four 사업단 소식

본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 7년간 BK21플러스 사업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및 국제 평판도에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한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은 국내 1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기 위해 (1) 교수진의 연구 역량 질적 향상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의 교육 체계 개편 (3) 양방향 국제화 실현 (4)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해결 기여라는 4가지 실천 전략을 토대로 해외 연구중심대학과 국제기구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 2022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사업단은 2022년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13회
- ▶BK21 Brown Bag lunch 세미나 7회
- ▶BK21 H-Trio 워크숍 10회
- ▶BK21 공동주관 학술행사 7회
- ▶BK21 특별강연 1회

##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ICRO)

**Simon Board (UCLA)**  
An Equilibrium Model of Experimentation on Networks

**Aniko Öry (Yale)**  
Aiming for the Goal: Contribution Dynamics of Crowdfunding

**Doruk Iris (서강대학교)**  
Reciprocal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정승원 (KAIST)**  
Uncertainty Paradox: Why You Should (Not) Lie

**Suk Joon Son (University of Tokyo)**  
Distributional Impacts of Centralized School Choice

**허영수 (KDI)**  
Uncertainty Aversion with Multiple Issues

**Heinrich Nax (ETH Zurich)**  
Convergence to Competitive Equilibrium in Double Auctions: Theory and Evidence

##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ETRICS)

**김동우 (Simon Fraser University)**  
IV methods for Tobit Models

**송경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ynthetic Decomposition For Ex Ante Policy Evaluation

**신용철 (York University)**  
Dynamic Quantile Panel Data Models with Interactive Effects

**조진서 (연세대학교)**  
GMM Estimation and Inference for Functional Data Applied to the Monetary Model for Exchange Rate

**Mikkel-Plaborg Moller (Princeton University)**  
Standard Errors for Calibrated Parameters

**Pedro Sant'Anna (Vanderbilt University)**  
Efficient Estimation for Staggered Rollout Designs

## BK21 Brown Bag Lunch 세미나

**김범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학교의 질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학급규모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유인경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Effect of Spousal Bereavement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omen

**박종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An Origin of 'Local Extinction'?

**Highway and Regional Disparity in South Korea, 1960 - 1995**

**박정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박사통합과정)**  
The Effect of Information Provision on Parental Decision-Making of COVID-19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 Nationwide Survey Experiment

**황영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What Determines Divorce in Korea?

**손원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Why Did the 52-hour Workweek Policy Fail to Reduce Working Hours?

## BK21 H-Trio 워크숍

**Munseob Lee (UCSD)**  
Government Purchases and Firm Growth

**Seung Hoon Lee (연세대학교)**  
Community Banks and the Mitigation of the China Shock (with Sung Je Byun and Sanghoon Lee)

**Seik Kim (고려대학교)**  
Fertility Prediction using Micro Data (with Yoosik Shin)

**Yeonha Jung (성균관대학교)**  
Agrarian Origi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ith Martin Fiszbein and Dietrich Vollrath)

**Dong Woo Hahm (Columbia University)**  
Prestige Concerns in College Application and Major Choice(with Yeon-Koo Che, Jinwoo Kim, Se-Jik Kim, Olivier Tercieux)

**Terry Seokmin Moon (UBC)**  
Firm Growth and Employee Earnings After Acquisitions: Linking Corporate and Worker Outcomes

**Hyunjoo Yang (서강대학교)**  
Using Maps and Machine Learning to Predict Regional Economic Proxies in South Korea, 1918-2020

**David Schoenherr (Princeton)**  
Legal Uncertainty(with Jiwon Lee and Jan Starmans)

**Jaehee Song(Colorado Boulder)**  
The Effects of Residential Zoning in U.S. Housing Markets

**Sun Kyoung Lee**  
When Cities Grow: Urban Planning and Segregation in the Prewar US

## BK21 공동주관 학술행사

**금융경제연구소 공동주관 세미나**  
**Nicolas Werquin(Chicago Fed)**  
A Fair Day's Pay for a Fair Day's Work: Optimal Taxation as Redistributive Arbitrage

**Pavel Brendler(University of Bonn)**  
Rising Earnings Inequality and Optim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Arpad Abraham(University of Bristol)**  
Tax Wedges, Financial Frictions and Misallocation

**Pawel Doligalski(University of Bristol)**  
Redistribution with Performance Pay (joint with A. Ndiaye and N. Werquin)

**Yoosoon Chang(Indiana University)**  
A Trajectory-based Approach to Measuring Intergenerational Mobility

**혁신센터 공동주관 세미나(2회)**  
**김정빈(Florida State University)**  
Coordination with Differential Time Preferences:

**Experimental Evidence (with Marina Agranov and Leeat Yariv)**

**신은철(KAIS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Cultures with Vertical Age-Based Social Hierarchies (with Matthew Chao)

**김상현(연세대학교)**  
한국은행 총재의 이력 정보와 사람들의 기대

**김덕규(성균관대학교)**  
Mixed-Gender Rank-Reversal Aversion(with Max Riegel)

**정세은(인하대학교)**  
Gender Stereotypes Alter the Gender Gap in Performance under Competition(with Jaesun Lee)

**임우영(HKUST)**  
Positive and Negative Selection in Bargaining: An Experiment(with Dongkyu Chang and Duk Gyoo Kim)

**장동규(CityU of Hong Kong)**  
Coase Conjecture: An experiment(with Jeongbin Kim and Syngjoo Choi)

**김부열(서울대학교)**  
Teaching Practices and Friendship Networks(with Syngjoo Choi, Eungik Lee, Yoonsoo Park, and Euncheol Shin)

**양희승(연세대학교)**  
Adaptive Learning and Student Achievement: Experimental Evidence from Vietnam(with Seura Ha, Booyuel Kim, Yoon Soo Park, Euncheol Shin)

**김대순(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ggregate Fluctuations from Clustered Micro Shocks

**현정식(HEC Montréal)**  
Bound by Ancestor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Global Supply Chain Relationship(joint with Choi and Ziho Park)

**백채원(Tufts University)**  
Inflation Expectations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perimental Study

**장민수(Georgetown University)**  
Marital Transitions, Housing, and Savings in Old Age(joint with Ami Ko)

**최재도(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Technology Adoption and Late Industrialization(joint with Younghun Shim)

**신용석(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Is Software Eating the World?(joint with Sangmin Aum)

## BK21 특별강연 및 세미나

**Costas Arkolakis (Yale University)**  
"Clean Growth" with Conor Walsh (Columbia Business School)

## 22년 1학기

### 장학금

#### 장학금 수혜 현황

2022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302명, 대학원생 50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32명, 대학원생 7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상대항상 재단을 통해 학부생 28명이 항상장학금을 받았다.

### 교무 및 학생활동

#### 제76회 전기 학위수여

경제학부는 박사 8명, 석사 5명, 학사 160명(최우수 1명, 최우등 63명, 우등 55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제76회 전기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스트리밍 재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22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6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경제수학'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 동문 수상

### 박준수 학생, 제40회 대학생 수학경시대회 입상



박준수(경제16) 학생이 제40회 대학생 수학경시대회(제1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대학생 수학경시대회는 대학생의 수학 학습 동기 부여와 기초 학문 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대한수학회에서 198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대학생 수학경시대회는 우수한 이공계 인재 배출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대회로서 입상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박준수 학생이 수상한 "제1분야"는 수학 및 수학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쟁하는 대회이기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올해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개최되었고, 시상식은 자택 상장 발송으로 대체하였다.

### 이대열 동문(경제85), 호암상 수상(2021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특훈교수로 재직 중인 이대열(경제85) 교수가 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호암상을 수상하였다. 이대열 교수는 경제학, 신경과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하여 신경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고 선도하고 있는 학자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연구를 하는 데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영장류 실험에 경제학의 의사 결정 이론인 게임 이론을 접목하여 각각의 의사 결정 상황에 특화된 특수 신경망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등인지 과정과 관련된 만족 지연, 전략적 의사 결정, 또는 후회와 같은 기존에는 몰랐던 특수한 기능을 가진 신경세포들을 새롭게 찾아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호암재단에서 주관하는 삼성호암상 시상식에서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일리노이대 생물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신경과학 박사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 의대 교수  
미국 로체스터대 교수  
미국 예일대 의대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특훈교수

## 경제학부 국제화 추진 현황

### 2022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 2022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Innovation, Corporate Org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김석호	Introduction to Economics
조성진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이철인	Analysis of Public Policies
Gueron Yves	Microeconomics, Topics in Microeconomics
Dmitry Shapiro	Studies i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박지형	International Trade

###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 한국경제혁신센터 하계 연구회 : 거시경제학1

6월 16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에서 '한국경제혁신센터 하계 연구회 : 거시경제학 1'이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와 경제학부 BK 21 사업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 학술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거시경제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 KBER Summer Workshop: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6월 28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에서 KBER Summer Workshop :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가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와 경제학부 BK 21 사업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 학술 세미나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및 실험경제학 관련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었다.



#### Cemmap/SNU Summer Workshop : Advances in Econometrics

8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에서 Cemmap/SNU summer Workshop이 개최되었다. 계량경제학 세미나로 University of College London의 Cemmap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계량 경제학 관련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다.